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가톨릭 성가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가톨릭 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폴더 22번> 하느님 우리 주여	<폴더 24번> 목자

제 1독서 | 탈출기 17,3-7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제 2독서 | 로마서 5,1-2,5-8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 요한 4,5-15.19-26.29.40-42



오늘의 복음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유엔 안보리 연설 (2023년 6월 14일)

오늘날 분쟁은 늘어나고, 세계의 안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조각 벌어지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욱 광범위해지는 듯합니다.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라는 사명을 지닌 이 이사회는, 때로 사람들의 눈에 무력하고 마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높이 평가하는 여러분의 활동은 평화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념과 좁은 시야, 당파적 생각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우리 모두의 공동 문제에 맞서 달라는 진심 어린 초대를 드리고자 합니다. 곧, 온 인류의 선을 위해 일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가꾸어 주십시오...

오늘날 세계화된 세상은 우리를 더욱 가까이 가져다주었지만, 우리를 더 형제답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제애의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불의, 가난, 불평등의 상황들에서 비롯되며, 또한 연대의 문화가 부족한 데서도 생겨납니다. 광범위한 개인주의, 자기중심성, 물질주의적 소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이념들은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버리는 문화'의 정신을 부추깁니다. 그 결과 가장 약한 이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경멸하고 버리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공존은 점점 더 실용적이고 이기적인 단순한 '주고받기'처럼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형제애 기근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무력 충돌과 전쟁입니다. 전쟁은 개인들뿐 아니라 전체 민족들까지 적으로 만들고, 그 부정적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 세계는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은 뒤 보다 안정된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마침내 '민족들의 가족'이 되는 길을 배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시안적이고 극단적이며 원한에 차고 공격적인 민족주의들이 고개를 들며, 시대착오적이고 넓은 분쟁을 다시 불붙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폭력적인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평화는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전쟁 때문에 이 놀라운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 전쟁은 평화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쟁은 이윤을 촉진하지만, 언제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합니다. 무기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은 그러므로 무고한 피로 더럽혀진 돈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손쉬운 이익을 포기하는 데에는,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무

기를 계속 파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기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결을 조장하기보다 만남을 증진하는 데, 적대 행위를 계속하기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전쟁의 정당성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의 범위가 더 제한적이었기에 그 논리가 어느 정도 통용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전장이 사실상 무한해졌고,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에 대해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전쟁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만이 정의롭다고 선언할 때입니다.** 곧, 위태로운 억지력의 균형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형제애 위에 세워진 안정되고 지속되는 평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땅 위를 함께 걷는 형제자매이며, 하나의 공동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평화를 세우려는 이들은 반드시 형제애를 증진해야 합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일은 열정과 인내, 경험과 통찰, 끈기와 헌신, 대화와 외교를 필요로 하는 장인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청이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외침, 특히 어린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눈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준비하는 미래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을 재판정에 세울 것입니다.

역사 안에 평화의 새 장을 써 내려갈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속하도록 그렇게 새 장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바로 그 목적을 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되풀이해 말하곤 하는 한 단어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제애입니다.**

형제애는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애에는 '관계적 존재인 인간에게 본질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성에 대한 생생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을 참된 형제자매로 바라보고 대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자각이 없다면, 정의로운 사회와 굳건하고 지속되는 평화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주일 미사 전, 2시 30분에 시작

• 기도 순서:

- 사순 제 4주일 (3월 15일): 요한
- 사순 제 5주일 (3월 22일): 사목회

2. 사순시기 중 성체조배

매주 수요일, 저녁 7~8시에 아란다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 성체조배 시간 중에 고해성사가 가능합니다.

3. 고해성사 관련 사순시기 강의

- 일시: 3월 15일(주일), 오후 4시 30분 (간식 나눔 후)
- 장소: 아란다 성당

4. 여정 '시즌 7' - 온라인 영적독서 모임

- 일시: 화요일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 모임을 위해 아래 분량을 읽어주세요
- <모든 형제들> 회칙, 3장까지



우리 형제들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불안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행동은 항상 깊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 공동체 기도 지향

- * 임신부들과 태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3월: 군비 감축과 평화를 위한 기도>

“국가들이 실질적인 군비 감축, 특히 비핵화로 나아가고, 세계 지도자들이 폭력이 아닌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봉헌금 & 교무금 | (2월 28일 ~ 3월 6일)

봉헌금	\$ 214			
교무금	\$ 800			
구민식	김천주	서미숙	송수지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최현주	황병욱	허준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3월 공동체 공동 실천 사항 |

다른 신자 분들 & 새로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기.